

칼럼

김운호 논설위원 · 행정학박사 · 국회출입자포럼 회장



선(先) 제재 해제와 평화조약 체결이 해결 열쇠다

11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겸 부장관 지명지를 면담했다. 하루 전 방한한 비건 대표는 '우리는 여기(서울)에 있고 당신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연락할지 안다'면서 북한에게 '판문점 회담'을 공개 제안했다.

북한은 연말을 기한으로 미국이 제재(制裁) 압박과 한미 군사 훈련 등 대북 적대정책을 변경시키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선언해 놓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1950년 적대와 살육의 6·25전쟁을 겪고 반공과 멸공의 대결정책으로 일관하다가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에서 화해협력의 햇볕정책을 폈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는 제재와 대결정책으로 회귀했다. 다시 문재인 정권에서 햇볕정책을 되살려서 계승시키고 있다.

지금 남북관계는 교착(交錯) 상태이고, 북미 관계는 중단상태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가혹한 대북 제재는 계속되고 있다. 남북 문제는 이념과 정파, 경험과 지식, 정보와 처지 등에 따라서 많

은 이견(異見)과 변수가 중첩되어 있는 어려운 난제임에 틀림없다. 보수적인 사람들은 미국 말이 옳고 북한은 악의 축으로 믿을 수 없고 나쁜 사람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진보적인 사람들은 미국도 좋지만 우리 민족인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우선시할 수도 있다. 보수와 진보 각 진영 내에서도 강성과 온건이 있는 등 이념의 스펙트럼은 다양하다.

부족하지만 남북문제, 통일문제를 공부한 전문가로서 나는 전에도 몇 차례 주장한 바 있는 나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요약하고자 한다. 나의 의견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자유와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복잡하고 예민한 통일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에도 다른 의견과 주장은 얼마든지 있기 마련이다.

첫째, 남북 문제, 통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선(先) 북미 수교(修交)와 북일 수교, 남북 수교이다. 1990년 노태우 대통령은 고르바초프 러시아 대통령을 제1주도로 초청하여 한러 평화조약

을 체결했다. 1992년에는 노태우 대통령은 중공 오랑캐로 불렸던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평화조약을 체결했다. 1950년 6·25전쟁에서 총부리를 맞대고 살육전을 벌였던 적성국가요,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북한과의 화해이며, 엄청난 핵 강국인 러시아·중국과 무조건 수교해서 지금까지 서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구도 5천만 남한 인구의 절반인 2천5백만이고, 경제력 등 국력은 남한의 30분의 1도 안되는 약소국가 북한은 살아남기 위해서 그 때부터 핵 개발을 착수했다. 또한 그때부터 미국과 일본, 한국과 정전협정과 평화조약을 체결해서 친구가 되어서 교류 협력하자고 애걸복걸했으나 지금까지 거절당하고 있다. 북한은 생존과 체제 유지가 완전히 보장되지 않으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결코 멈출 수도 없고, 더더구나 핵 폐기는 있을 수가 없다.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1990년 한러 수교와 1992년 한중 수교 때, 엄청난 핵

강국 러시아와 중국의 핵 감축이나 핵 폐기를 거론이나 했는가. 지금이라도 무조건 북미 수교와 북일 수교, 남북 수교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선(先) 제재 해제와 북미 수교와 북일 수교, 남북 수교가 이루어지면, 북한의 핵 보유나 비핵화(非核化)는 큰 문제 거리가 되지 않는다. 북한 주민들의 경제 생활과 삶의 질이 낫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북한 지도층은 서서히 중국식 개혁 개방을 하고 있다. 제재 해제와 수교 등으로 체제 보장이 되면, 어려운 나라 살림 속에서 구태어 핵 개발을 할 필요도 전혀 없고, 미국에 비하면 게임도 되지 않는 핵무기를 들고 너 죽고 나 죽자고 달려들 이유가 전혀 없다. 비핵화를 놓고 회담이다 협상이다 따드는 일은 죄다 부질없는 헛개비 노름이다. 반지수가 잘못된 곳에서 오랜 세월 헛손질, 헛발질만 하고 있는 셈이다.

셋째,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은 정권이 바뀌어도 최소한 20년 이상 꾸준히 지속되어야 한다. 1970년부터 동서독은 20년 이상 교류 협력을 하고 통일을 했어도, 통일 30년이 지난 지금도 옛 동독 지역 주민과 서독 지역 주민 간에 경제적·문화적 차이가 커서 고통을 받고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교류 협력의 통일정책은 동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해서는 결코 안된다. 고속도로에서 거꾸로 달리는 역주행(逆行)은 더구나 안될 일이다. 역주행은 민족과 역사에 대한 대역죄(大逆罪)이다.

社說

연말 음주단속 강화해야 한다

연말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당국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는 등 특별대책을 시행한다니 행여라도 음주운전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16일부터 31일까지를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해 기관 간 대책을 공유하고 집중 단속을 벌인다.

경찰은 이 기간 음주운전 상시단속체계에 돌입해 유증가, 식당, 유휴지 등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곳 주변에서 밤낮 없이 불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올해 6월 이후 오히려 음주운전 적발이 늘어난 4개소에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밤에는 전국 동시 단속을 할 예정이다. 이때는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겨가면서 하는 단속도 벌일 방침이다.

경찰은 오토바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 과속이나 안전모 미착용 등도 단속한다. 아울러 전국 주요 과적검문소

에서 도로관리청,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적재정량을 초과해서 짐을 실었거나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한 화물차 등을 특별 단속한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또한 버스와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의 안전사항을 점검하고 운전자가 졸음 운전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운수 단체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들 기관은 음주운전, 보행자 사고, 화물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도 진행한다.

특히 연말을 맞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서울 종로, 강남 등에서 '보행 안전 및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한다. 또 장거리·야간 운전이 많은 화물차의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반사띠 부착을 지원하고 화물운수 단체와 함께 '화물차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인다.

경찰청은 연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1388
- ▲이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랑알코올상담센터 222-5666
- ▲광주남성의전화 673-9001
- ▲광주여성의전화 363-7739
- ▲수도 고장신고 121
- ▲전기고장신고 123
- ▲가스사고신고 383-0019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겨울철 졸음운전 휴식필수 배려감속 생활화 해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3년간(2015~17년)의 졸음운전 사고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졸음운전 사고의 치사율(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 수)은 4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2명)의 2배였다. 운전자가 졸고 있던 탓에 핸들을 돌리거나 브레이크를 밟는 등의 사고 대응이 전혀 없이 그대로 차량 또는 장애물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겨울철에 졸음운전은 누구에게

나 찾아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이를 지나치게 간과하고 있다. 이에 졸음운전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첫째, 스트레칭을 하라. 앉은 자세에서라도 스트레칭을 하면 졸음을 줄일 수 있다. 팔을 쭉 뻗으며 어깨를 풀어주거나 의자 등받이에 팔꿈치를 지탱하고 허리를 곧추세우는 동작, 목 근육을 풀어주는 동작이 도움이 된다.

둘째, 자동차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하라. 사람이 졸음이 오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뇌에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창문을 닫은 채 장시간 운전을 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짙어져 졸음을 유발하므로 창문을 내려 환기 시켜 주고, 창문은 운전석 쪽 창문과 대각선 뒤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면 효과적이다.

셋째, 너무 과식 하지 말라. 인

체가 음식을 소화 시킬 때에는 체내에 산소요구량이 많아지게 된다. 산소요구량이 많아지면 호흡을 하게 되고 졸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장시간 운전을 하게 될 때에는 너무 배부르게 먹는 것은 좋지 않다.

넷째, 졸리면 자고 가라. 졸음운전 예방법중 제일 좋은 방법이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눈꺼풀이란 말도 있다". 운전 중 졸음이 오면 쉼터나 안전한 곳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

백종희 / 무안소방서 지휘팀장

등록번호 광주가 0021 (일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팩스 (062) 222-5547

대표이사·회장·발행인 김평호  
편집인·편집국장 강서원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민세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